

우리 가정이 다음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함께 나눠봅시다.

† 찬송: 찬송가 559장 | 다같이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

이로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요다 (시 112:1-2) 임마누엘 가창: 10.10.10.10.PEF. 구두희, 1967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몽 쳐잇 고 가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고 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쉬운 기타코드(capo=1st) D<sup>b</sup>→C A<sup>b</sup>→G E<sup>b</sup>7→D7 G<sup>b</sup>→F

† 주기도문 | 다같이

# 한기-위

# 추석

# 2022 가족예배



예수향기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예향교회

Gumi Yehyang Presbyterian Church



## ■ 추석 가족예배 순서 ■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여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 † 신앙 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찬송가 570장 | 다같이



## 570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부름으로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요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2.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과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고거친 비 바람 상처 못하리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로마를 늘 인도하여 주신 다  
 사랑하시는 강 의 목자 들을 치 이 나를 언 계 나 불러 주신 다  
 나의 주 약 로 지켜 주신 다

후렴  
 주는 나 의 종 은 목 자 나는 그 의 어린 양  
 주는 나 의 종 은 목 자 나는 그 의 어린 양

천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혀 없 어 라 아멘

### † 대표기도 | 말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성경봉독 | 여호수아 4:4~7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언약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그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 규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 † 말씀 | 인도자

###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앙의 유산은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경험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열두 돌을 세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에서 열두 돌을 택하라고 하신대로 강을 다 건넌 뒤에 이들을 여호와와 그의 언약 규를 맨 제사장들이 서있는 강 한가운데로 보내서 그 앞에 있는 큰 돌을 하나씩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열두 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 기념비로 삼게 하셨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대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큼지막한 열두 돌의 기원을 궁금해 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후손들은 부모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체성을 깨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일을 기념하거나 민족성을 고취시킬 때 길갈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도 길갈로 다시 돌아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이성 전투에 나섰습니다. 후대에 사무엘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길갈에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 날을 기념하고 후대에게 전함으로 믿음의 가정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